

기업애로해소 노력 · 일자리사업 활발

전주상의 올 상반기 성과

“원자재값 상승 · 3고 시대 극복 위해 노력”

연초 엄중했던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완화되면서 전주상공회의소는 지난 상반기 회원기업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한 해를 위한 민간지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기업애로해소와 지역한 해를 위한 노력

코로나19 여파에 따른 내수침체와 치솟고 있는 원자재가격 상승 등 대내외 불확실성 속에서 전주상의는 조사연구, 건의활동에 큰 중점을 두고 국제청장 간담회, 산업단지 의원 초청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발굴 해소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고,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기초 노무교육, 기업세무교육 등 각종 설명회 개최와 경기전망 월중동향조사 등 다수의 조사를 통해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어려움에 처

한 기업들의 목소리가 지자체와 정 부정책에 반영되도록 자료를 제공하 기도 하였다.

특히,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지난 해 12월 발간한 전북지역 경제계 대 선공약집을 연초 대선을 앞둔 각 정 당 및 후보자에게 전달하여 어려움 에 처한 전북도민과 상공인의 염원 을 호소한 바 있고, 지난 4월에는 당 선인 신분으로 전북을 방문한 윤석 려 대통령에게 전북지역 SOC개발 철 폐, 중대재해처벌법 완화를 포함한 환경노동 관련 기업규제 해소를 위 한 의견을 제시하는 등 전북경제 대 표기관으로서 지역기업과 현안 해결 에도 적극 앞장서 왔다.

또한 매년 지속하고 있는 지역난 사 물 구입, 복지시설 위문 및 지원, 강 원경북지역 산발피해 성금지원, 코

로나19 관련 농업관련 기업 업무협 력에 동참하는 등 기업지원과 더불어 지역사회공헌에도 앞장서고 있 다.

▲일자리사업 활발, 전북인사위 3년 연속 우수기관 선정

또한 극심한 구인, 구직난속에서 2009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전북일자 리지원센터의 상반기 인력지원 성과 도 큰 주목을 받고 있다.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 기업진흥공단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재직자 내 일채움공제,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 금 사업, 국민취업지원제도, 시니어인턴십 등 다양한 연령층과 프 로그램을 통해 600여명 이상을 상반 기에 지원하였으며, 지난 6월에는

전라북도과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주)상상우리와 함께 지역기업 미 스매칭 직무인력 채용 협약을 체결 해 수급이 어려운 IT 및 연구직 등 특정 직무에 대한 지역기업의 인력 한 해소를 위해서도 팔을 걷어부치 고 나섰다.

특히, 전북지역 현안을 반영한 다 양한 맞춤형 일자리 사업을 통해 일 자리발굴은 물론, 취업지원에 앞장 서고 있는 전주상의 전북지역인적 자원개발위원회는 훈련과정 운영, 네트워킹, 코로나19 및 산업구조 변화로 위기에 처한 기업의 선제 적 대응을 위한 맞춤형 훈련 프 로그램 개발에 앞장서는 등 기업경 쟁력 강화 제고에 크게 기여한 결 과 관계기관 성과평가에서 3년 연속 우수기관에 선정되는 쾌거를 안기도 하였다.

▲하반기, 원자재가 상승을 비롯한 불확실성 지역기업과 극복 앞장

2022년 하반기에도 경제상황의 불

확실성이 지속될 전망이다. 환경?노 동과 관련된 규제와 최저임금 인상, 생산인력 부족 등 어려움에 처한 중 소기업업종에서 최근 물가와 금리, 환율 등 3고 현상과 더불어 종결되 지 않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원자재가격 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 증가는 기업들에게 는 큰 악재가 아닐 수 없다.

윤방섭 회장은 “전주상의 임직원 모두는 명실공히 지역을 대표하는 경제단체로서의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지역발전을 위한 민간지원의 역 할을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이 라고 강조하고 “특히, 대내외 불확실 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기 업이 위기를 기회삼아 더 큰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민선 8기 출범과 더 붙어 지자체와 지역정기기관의 간담 회 확대 등을 통해 기업지원을 위한 정책과 규제 해소 등 기업의 목소리 를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김윤상 기자

모바일 댄서증 있으면 모든 금융 거래 가능

전북은행,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시행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서한 국)이 12일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으 로 영업점에서 모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서비스’ 를 시행한다.

블록체인 기반의 분산원인인증인 DID(Distributed ID) 기술을 통해 변조 가 불가능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행 정안전부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 받아 보관 및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신분증이다.

전북은행 모든 영업점 창구에서 모 바일 운전면허증으로 QR인증을 하면 신분증 제출이 완료되어 통장 신규 및 해지, 수신, 여신 업무 등 모든 금융 거래를 할 수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모바일 운전면 허증 서비스 시행으로 영업점 방문 고 객이 편리하게 은행 업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며 “앞으로도 고객 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함께하는 은 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 라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은행 홈페이지 및 고객센터(1588-4477)에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경관 화훼 연구, 새만금 간척지서 싹 틔운다

농진청, 오늘 김제 광활

시험재배지서 현장 설명회

관광과 환경을 목적으로 공원과 하 천 등에 꽃을 심어 꾸미는 경관 화훼 산업이 주목받는 가운데 농촌진흥청 (청장 조재호)이 새만금에서 간척지를 활용한 경관 화훼 연구를 시작했다.

농촌진흥청은 전라북도농업기술원과 함께 김제시 광활면 새만금 시험 재배 지에 조성한 간척지 경관 화훼 연구 현장을 13일 관련 전문가와 일반에 선 보인다고 12일 밝혔다.

화훼 선진국인 네덜란드는 튼튼 알 품리 생산을 위한 대규모 재배단지를 관광 명소화해 세계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국내 간척지에도 화훼류 이용을 확대하고 경관 화훼의 연구 동향과 산업화에 대한 정보를 공 유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

연구진은 재배지 특성을 고려해 꽃 이 간척지의 소금기 영향을 덜 받고 안정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식물을 심 기 전 인근 농업 현장에서 나온 왕겨 를 10cm 깊이로 깔고, 벼짖을 100여 (a)당 500kg 투입했다. 이를 통해 토양 내 유기물 함량을 높이고 토양 물리성 을 개선함으로써 토양 염도를 10% 이 상 낮췄다.

시험 재배지는 총 9,917㎡(3,000평) 규모로 △나리(백합)를 활용한 경관 화단 △여러 종의 꽃을 섞어 심은 화 단 △디자인적 요소를 넣어 꾸민 화단 등 국내외 화훼류를 활용한 3가지 주



관광과 환경을 목적으로 공원과 하천 등에 꽃을 심어 꾸미는 '경관 화훼산업'이 주목받는 가운데, 농촌진흥청이 새만금에서 간척지를 활용한 경관 화훼 연구를 시작했다.

제 화단으로 조성했다.

첫 번째 나리 경관 화단은 규모가 큰 경관 화훼지 조성의 가능성을 확인 하고자 만들었다. 국산 품종 ‘오렌지 크라운’, ‘스파클링라이트’를 비롯해 실외에서도 잘 자라고 주황, 노랑 등 으로 꽃 색이 화려한 품종을 한 줄씩 출시켜 심었다.

두 번째 화단은 나리와 함께 만드라 미, 코스모스 등 다양한 색의 꽃(초화 류)을 출시켜 심었다. 나리와 다른 꽃 과의 조화로운, 화려함이 돋보이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디자인 화단은 나리와

간나 글라디올러스, 리아트리스 등 알 품리식물(구근류) 5종과 만드라미, 클 레옴, 코스모스, 황화코스모스, 버들 마편초, 샬비어 등 꽃이 예쁜 식물(초 화류) 16종을 섞어 심었다.

특히 경관 화훼 식물용 이용 가치가 높은 나리는 국립원예특작과학원과 전라북도농업기술원, 한국농수산대학 교, 산업체(우리화훼)에서 개발한 품 종을 함께 심어 경관지 적응성과 품 목, 품종 간의 색과 질감 조합을 통해 경관 조성이 어렵지 않고 관리가 쉬운 품종을 선발할 수 있도록 했다.

/김윤상 기자

도내 기업 FTA 활용 · 실무능력 향상

경진원, 수출입계약 · 결제 심화 · 중급과정 실무 교육

전라북도과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이 운영 중인 전라북도FTA활용지원 센터(이하 전북FTA센터)는 오는 22일 도내기업들의 FTA 활용 및 실무능력 향상을 위해 FTA 활용 수출입 계약 및 결제 심화과정 중급과정 실무 교육 을 개최한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비대면 으로 운영되었던 교육프로그램을 사 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인해 오히려 대면운영으로 진행된다. 교육내용은 무역계약 이행 및 종류 △대금결제 방법, △대금결제 리스크관리 △계약 및 결제 대비 FTA활용 TIP △수출입 대금 관련 법규 및 절차 등을 중심으 로 김은주 강사와 조정훈관세사와 합 계 4시간동안 진행한다.

전북FTA센터는 작년 총 11개의 FTA교육과정을 개설하고 370명의 교 육생을 배출했으며, 올해 총 10개의 FTA 교육을 개설해 원산지관리사 1차 자격교육대반을 시작으로 도내 무 역인재 양성 및 수출기업의 FTA활용 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교육 및 설명 회를 운영중에 있다. 또한 다음달 말 2022 하반기 관용변동 리스크 관리 및 무역보험 설명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경진원 이현용 원장은 “이번 실무교



육을 통해 무역계약의 주요 조건별 쟁 점을 숙지하여 도내 수출기업이 유리 한 협상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전북지역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개척과 수출 활 성화를 위해 교육, 설명회,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북FTA센터는 FTA 전문관세 사와 원산지 관리사로 구성되어 있어 증명서류 작성뿐만 아니라 원산지증 명서 발급 방법, 관세, 통관 등 FTA 관련 상담이 무료로 가능하다. 교육 참여 및 문의는 경진원 홈페이지 (www.jbta.kr)와 경진원 해외시장팀 (063-711-2035)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윤상 기자



시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영상 제작 · 배포

시험중앙회(회장 김윤식, 이하 시험)가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홍보영상을 제작 및 배포했다고 12일 밝혔다.

해당 홍보영상은 시험 직원들이 조 합원의 피해를 예방한 시험의 실제 사 례를 토대로 금융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배우들의 재연 영상으로 제작 됐다. 콘텐츠 형식은 인기 TV 프로그램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날 이야기’ 를 패러디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신 험이야기’로 만들어져 몰입도를 높였 다.

영상은 총 3편으로, 상담 내내 울리 는 고객의 휴대전화에 수상함을 느껴 금융사 사칭 대물사기 피해를 예방한 △대출사기, 고액 현금 인출을 요청 한 고객이 인출 사유를 명확히 답하지 못하는 등 보이스피싱 의심 징후가 보 여 실땀 끝에 대면 편취 피해를 예방 한 △기관(경찰)사칭권, 외국 중 고객 의 가계에 방문한 직원이 자녀사칭 문 자로 개인신용정보를 넘겼다는 사실 을 알고 신속히 계좌를 지급정지시켜 피해를 예방한 △사채사칭 메시지피 스파밍이다.

시험 공식 유튜브 채널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는 해당 영상은 바이럴 홍보 를 위한 시청자 참여 이벤트도 진행된 다.

추창호 시험 금융소비자보호부장은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해 보이스피 싱 피해예방 홍보영상을 제작하게 됐 다”며 “시험 SNS를 통한 홍보와 조합 태블릿 모니터 상시 상영 등으로 조합 원에게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공유 하며, 피해 예방 교육에 적극 앞장서 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험은 2022년 상반기 전국 35 개 시험의 대면 모니팅을 통해 보이스 피싱 피해금 총 12억원을 예방했으 며,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적 기 틀과 구체적인 관리 지침을 마련하고, 금융소비자보호현장을 선포하는 등 금융소비자 권리 증진에 매진하고 있 다. /김윤상 기자

NH전북, 올 사업비 6000억 투자

맞춤형 지역개발 · 도시재생 · 주거복지사업 추진 중

NH전북지역본부(본부장 안창진)는 다시 뛰는 전북, 눈에 띄는 국민신 의라는 슬로건 아래 2022년 6,000억원 규모의 사업계획을 편성하고, 다양한 지역맞춤형 지역개발사업, 도시재생사 업 및 주거복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고 12일 밝혔다.

이달 공급예정인 익산평화 등 총 20 개 블록, 약 8,351호의 주택건설 및 익 산소과 공사비 등을 위해 3,400억원,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주택매입, 임대 주택 수선유지비 등에 2,500억원 등 약 600억원 규모의 사업비를 집행 중 에 있으며, 전주역세권, 전주거점산 공 공지원간담대사업이 정상추진될 경 우 사업비는 약 8,000억원 증가될 예 정이다.

또한, 전주탄소소재 및 원주소수 국 가산단 익산스틸플러스터 2단계 사업 등 새정부 정책 사업에 대하여 지자체 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NH의 역

할을 모색해 나갈 예정이다.

NH가 참여하는 도내 21곳의 도시재 생사업 중 금년 연말까지 익산송학 사 업지구 내 행복주택 공사착공 및 21 년 뉴딜공모로 신규 선정된 전주덕진 등 2개 사업지구에 대한 사업계획을 조속히 구체화할 예정이다.

특히, 익산평화 주거환경개선사업은 토양오염으로 사업중단 위기에 처하 였으나 익산시, 지역자치권과의 적극 적인 협의로 정상추진해 이달 중 공급 예정이며, 익산시 주거안정에 크게 기 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주거복지부문에서도 생계·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청년, 신혼부부 등 사회 적 약자 지원을 위한 다가구주택 및 공공리모델링 사업을 지속 추진할 예 정이고 전주시 등 지자체와 협업하여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과 생활SOC 공급을 확대하는 물론, 비주택거주자 지원을 위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장기

채납가구 주거안정 지원사업 등도 확 대시행 할 예정이다.

임대주택 부문은 고창·무장·울계 지구 국민·영구임대, 정읍·수 성·원주·삼례 행복주택 등 총 8개 블 록에서 약 1천호를 순차적으로 신규 공급할 계획이다.

기존 생활권내 거주를 원하는 취약 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해 전세임대 1,281호, 매입임대 713호 등을 공급할 계획이고, 기 입주 단지 또한 예비입 주자를 수시로 모집하는 등 지역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NH전북본부는 주택공급 외에도 임대 주택의 에너지성능 향상 및 효율개선 과 주거비 부담 경감 및 입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한 ‘그린리모델링 사업’, ‘찾아가는 주거복지 서비스’, 임대주 택단지 내 공실상가를 청년 창업 공간 및 지역공동체 소통공간으로 활용한 ‘Young·求 임대상가’ 등 다양한 서비 슴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본부 별관에 사회적경제 조직 을 위한 플랫폼을 구성하고 장터, 문화공연을 함께 실시하는 등 전북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윤상 기자

NH농협은행

NH농협은행 쌀 소비 촉진 캠페인

농가를 응원하는 따뜻한 밥상 이벤트 실시

· 9/6에 쌀 농가 응원 댓글 작성 및 우리 집 밥상 인증샷 공유
·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농협 쌀(4kg) 제공

쌀 농가를 응원합니다

NH농협은행 전북본부

“따뜻한 밥상” 이벤트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장 경민)는 재고 과잉과 소비부진으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쌀 농가를 돕기 위한 쌀 소비 촉진 캠페인 의 일환으로 “농민을 응원하는 따 뜻한 밥상” SNS 이벤트를 실시한 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농협은행 공식 SNS에서 오는 29일까지 진행된다. 쌀 농가를 응원하는 메시지를 댓글로 작성하고 본인의 SNS 계정에 ‘우리 집 밥상’ 인증샷을 등재하 면 추첨을 통해 1,000명에게 유기 농 농협 쌀(4kg)을 제공한다.

장경민 본부장은 “쌀 과잉 생산 및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쌀 소비 촉진 캠페인 을 펼쳐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윤상 기자